하상 주보





주임신부: 배하정 다니엘 사도회장: 안민철 미카엘 연령회장: 홍의훈 요셉

(703-966-8206)

사 무 실: 703-968-3010 팩 스: 703-968-3013

주 소: 4712 Rippling Pond D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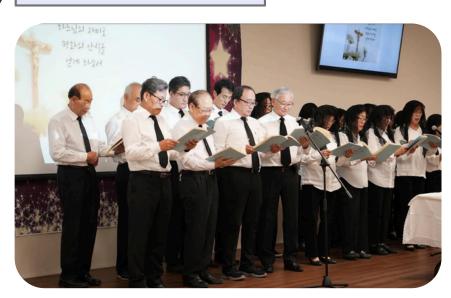
Fairfax, VA 22033

이 메일: sthasang@gmail.com

4			
C	미사안내	(Mass	Schedule)

주일미사	* 8:00 AM * 10:00 AM (교중미사) * 2:00 PM (학생미사) * 5:00 PM (청년미사)		
토요일저녁 주일미사	* 7:30 PM		
월, 목, 토	화, 금	수	
* 6:00 AM	* 7:30 PM	* 11:00 AM	

"희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로마 5,5) 희망의 순례자들





지난 11월 23일 위령성월을 보내면서 또한 전례력으로 한해의 마지막 주일인 그리스도왕 대축일을 맞아 2025 전 신 자 연도대회가 열렸습니다.

총 9개팀 150여명 참가한 이번 연도대 회는 한국 천주교회만이 하고 있는 연도 (위령기도)의 장엄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배하정 주임신부님은 "비록 우리는 미국에 살고 있지만, 한국 천주교회의 연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다시 한번 느끨수 있어 행복했고, 다음에는 더 많은 청소년들이 함께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연도대회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청년부 한승진 아녜스 자매님은 "함께 하게 되어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 내년에는 청년들도 꼭 함께 하겠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 대회결과

1등 센터빌 구역

2등 페어펙스 2구역

3등 페어팩스 1구역

4등 라우든 2반, 요한회

복음묵상의 향기 '말씀'

깨어 준비하십시오

대림 시기를 맞이하여 빛으로 오시는 주님을 뜨겁게 기다립니다. 오늘 제1독서에서는 시대의 종말에 관한 이사야의 환시를 들려줍니다. 세상에는 평화에 대한 강한 열망이 있지만 끊임없는 갈등도 많습니다. 이러한 갈등은 평화를 멀리하고 많은 슬픔과 불행과 함께 고통을 자아냅니다. 주님께서는 화해를 이루시는 분, 평화의 사자로 오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하느님의 길을 가르쳐주시고, 하느님의 뜻, 곧 구원과 평화, 정의와 사랑의 길을 알려 주시러 오십니다. 하느님의 약속을 전하는 이사야는 "야곱 집안아, 자, 주님의 빛 속에 걸어가자!" 하고 초대합니다.

제2독서에서 바오로도 똑같은 가르침을 제시합니다. "여러분이 잠에서 깨어날 시간이 이미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우리의 구원이 더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육체적인 잠이 아니라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는 일이절박합니다. 육과 육이 주는 쾌락을 따르지 않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하는 것은, 밤이 물러가고 새날이 밝아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느님의 뜻에 관심이 없음을 지적하시며 그분의 오심을 깨어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홍수가 닥쳐 모두 휩쓸어 갈 때까지 아무것도 모르고, 시대의 징표에 관심없이, 하느님의 뜻을 제대로 알거나 실천하려는 마음 없이, 그저 먹고 마시며쾌락에 젖어 살았던 홍수 이전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보인 행실을 근거로 제시합니다. 우리는 각자의 본능과 사악한 경향에 휘둘리지 말고 올바른 방향, 곧하느님과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방향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깨어 있는 사람은 사람의 아들이 언제 와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안봉환 스테파노 신부

[금주의 교리 상식] **대림시기 (1)**

대림의 의미와 유래

오늘은 전례력으로 한 해가 시 작되는 대림 제1주일입니다. 가톨 릭교회는 오늘부터 4주간 주님 성 탄 대축일을 준비하고 재림하실 구세주를 기다리는 대림 시기를 지내게 됩니다. 대림 제1주일은, 주님 성탄 대축일인 12월 25일의 바로 앞 주일을 대림 제4주일로 하여 역으로 계산해 정합니다. '대 림'은 '임하시기를 기다린다.'라는 의미인데, 이를 가리키는 라틴어 Adventus는 '다가옴, 가까워짐, 도착' 이라는 뜻을 갖습니다.

역사적으로 대림 시기의 전례 와 풍습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가장 오래된 기록은 4세기 말경 스페인과 갈리아(오늘날 프랑스) 에서 성탄 대축일을 앞두고 6주 동안 참회 기간을 가졌다는 것입 니다. 그러다 6세기 이후 로마와 라벤나에서 대림 시기의 전례를 공식적으로 거행하기 시작했습니 다. 이때도 처음에는 6주간이었으 나, 성 대 그레고리오 교황은 이를 4주간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로고스 & 라파엘 Potluck 식사



지난 11월 25일 화요일, 로고스와 라파 엘 청년들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각자 준비한 음식을 가져와 나누는 potluck 식사를 가졌습니다. 청년들은 함께 저녁미사를 봉헌한 후 친교실에서 음식을 먹으며 친교를 나누었습니다. 각자 조금씩 음식을 가져와 보니, 부족할까 걱정한 것이 무색할 만큼 모두가 함께 나누어 먹고도 넘쳤습니다. 이러한 자리를 함께 할 수 있음에 하느님께 감사하게 되는 자리였습니다.

어버이 성서모임 종강미사화 나눔



지난 11월 23일 어버이 성서모 임단체가 한학기를 마무리하며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5시 미사를 종강미사로 함께 봉헌하 고 미사 후 친교실에서 말씀나눔 을 하였습니다.

이번 학기 성서모임에서는 총 5 명의 수료자를 배출되었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생활화하며 한학기를 보낸 그룹원들이 다음 학기에도 많은 신자들의 관심을 바라며 학기를 마치는 소감을 아래와 같이 전했습니다.

우선 저희 봄학기 창세기팀의 봉사를 해주신 레지나 자매님 메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창세기 수업 시간은 제게 아주 소중 했던 하루하루였습니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해서 요셉까지, 저희 인간은 너무 많은 것들로부터 유혹에 빠지고, 반복해서 실수도 하지만, 우리를 절대로 포기 하지 않고 돌봐 주시는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 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으므로, 그는 모든 일을 잘 이루는 사람이 되었다" 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픈 가족, 이민, 사춘기,학교, 친구, 건강, 직장, 경제적, 정신적인 이유로 삶의 고비를 넘기고, 힘든 시기를 무사히 잘 보낼수 있도록 지금의 저를 만들어 주신 이유가 주님께서 저와 늘 함께 계셨기에 제가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설수 있었습니다. 성서공부와 묵상을 함께하면서, 제 자신에게도 솔직하지 못했던 저의 모습을 보게되었고, 반성하고,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제가 창세기를 다 읽었다.

- 김혜경 헤레나

요한복음을 다시 시작하며 성령님께 기도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제 영혼 안에 깊이 새겨주시기를.

사랑 기쁨 평화 인내 호의 선의 성실 온유 절제

요한이 모든 것을 예수님 오심을 준비하기 위하여 일했듯이 우리의 일상이 하느님 나라 건설에 조금이나마 보탬이되는 시간이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내 삶의 시간들이 당신 나라를 이루는데 보탬되도록 공동선을 찾기에 방해되지 않도록 자기 영역이라 고집하는 나의 시간 재능 재물 일 이 모든것들을 자기 영역이라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잘난체 하지 말고 시비하지 말고 시기 질투하지 말며 복음을 배우고 익히며 복음을 삶으로 살아갑시다.

- 이경아 마리아

* 지면 관계상 싣지 못한 소감은 차주에 이어서 게재할 예정입니다.

성경을 읽고 또 읽고 ,숙제하랴 묵상하랴 쉽지는 않았지만 나의 마음속애 순종과 겸손을 새기게 되었습니다. 성서 모임 을 통해 내적으로 성장하게 되었고 그 시간이 활기찬 신앙 샹활을 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 전길희 로사

요한복음 20장 29절, 예수님께서 토마스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이번 성서 공부 시간에서 가장 기억이 남는 성서의 말씀입니다. 아마 신앙생활하면서 평생 마음으로 새겨야 할 말씀인것 같습니다. 믿음을 갖도록 노력하며 많은 노력으로 믿음을 키워 가겠습니다.

- 김경수 베네딕트

작년에 성당으로 새로 전입한 후 올해는 여러 봉사에 참여 하면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지친 순간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성서공부를 통해 말씀의 힘을 깊이 느낄 수 있었고, 그 덕분에 한 해를 잘 견딜 수 있었습니다. 성서는 정말 생명의 말씀임을 다시 깨달았습니다.

특히 마지막 연수과정에서 들은 루카복음 17장 10절, "저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이 말씀은 저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봉사와 성서 공부를 하면서 때로는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결국 모든 것이 주님의은총 안에서 이루어진 일임을 고백합니다. 앞으로도 겸손히, 맡겨진 일을 기쁘게 감당하는 종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서 공부를 리드해주신 장지혜 로사 자매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직장 생활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늘 많은 준비를 해주시고, 깊은 신앙심을 보여주셔서 저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 정지상 대건 안드레아



본당 주임신부님을 포함한 과달루페 성지 순례 일행이 11월 18일부터 22일까지의 일정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멕시코의 과달루페 성지는 1531년 테페 악 언덕에서 발현했다고 전해지는 과달루 페의 성모님을 기념하는 곳으로서 세계 3 대 성모 발현지 중 하나로 꼽습니다. 성모 상이 있는 과달루페 성당은 바티칸의 성 베드로 성당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톨릭 순례자가 많은 곳으로 알려져 있 습니다.

하상문화원 이사회



지난 11월16일 하상문화원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올해 9~11월 기간동안의하상 성인학교, 하상 한국학교, 하상방송 (KACM TV)의 활동 사항들을 점검했습니다. 배하정 다니엘 주임신부님(문화원 이사장)과 홍정옥 문화원장, 그동안 하상방송 운영을 맡아온 노시창 이사에 이어 새롭게 중책을 맡게 된 전용진 이사를 비롯한 이사진들이 참석했습니다.

1. 2차 헌금 안내

• 12월 13-14일 (대림3주)에는 크리스마스 자선 (Catholic Christmas Collection)을 위한 2차 헌금 이 있습니다. 신자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 대림 1주간 모임 안내

• 11월 30일 (일) : 루가회 월례 모임 (오전 11시 30분)

3. 대림 2주간 모임 안내

• 12월 4일 (목): 첫목요일 미사 및 성시간

• 12월 5일 (금) : 봉성체 (오전 9시)

십자가의 길 (저녁 6시 50분) 베드로회 형제 모임 (저녁 8시)

12월 6일 (토) :

첫 토요일 성모 신심 미사 (오전 10시 30분) 바오로회 가족 모임 (오전 11시) K of C 연말 모임 (저녁 6시)

• 12월 7일 (일):

구역 봉사자 회의 (오전 11시 30분) 레지오 마리애 연차 총 친목회 (저녁 5시 30분)

4, 12월 첫 주간 전례 안내

- 12월 4일 (목) : (새벽 미사 없습니다) 저녁 7시 30분 첫 목요일 미사, 성시간
- 12월 5일 (금) :

저녁 6시 50분 십자가의 길, 7시 30분 미사

12월 6일 (토): (새벽 미사 없습니다)
오전 9시 묵주 기도와 묵상, 고해성사
오전 10시 30분 첫 토요일 성모 신심 미사

5. K of C 붕어빵 판매

 11월 30일 (일) 8시, 10시 미사 후에 붕어빵 판매를 합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6.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을" 동전 모으기 저금통

-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기 위한 동전 모으기 저금통을 대림 제1주일(11월 30일)부터 배부합니다.
- 대림 시기 동안 동전을 모아 주님 공헌 대축일 (1월 4일)에 봉헌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 CCD 주관 스넥 도네이션 Drive

- 일시: 11월 30일(일) 12월 21일(일)
- 장소 : 하상관 로비
- 지역 사회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Fairfax County 경찰 및 소방관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스넥 도네이션을 받습니다.
- 도네이션 스넥 종류 : 초코 파이, 초코 송이, 버터 와플, 김스넥, 엄마손 파이, 컵라면 미니, 와사비 그 린빈 스넥, 젤리류 (하리보, 말랑카우 등)
- 문의 : 윤혜완 아가다. 703-201-2488

8. 12월 봉성체

- 일시: 12월 5일(금), 12일(금) 오전 9시부터
- 문의: 정문기 윌리엄 703-598-3316

9. K of C 연말 모임

- 일시: 12월 6일 (토) 저녁 6시장소: 이재원 야고보 형제님댁
- 문의: 한상준 프란치스코 703-438-8992

10. 레지오 마리애 연차 총 친목회

- 일시: 12월 7일(일)오후 5시 30분, 친교실
- 대상: 행동 단원 및 협조 단원
- 문의: 배성훈 디모테오 703-507-2492

11. 원죄없이 잉태되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 의무 대축일 미사 안내

- 일시: 12월 8일(월) 오전 10시 30분,저녁 7시 30분
- 원죄없이 잉태되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 대축일도 의무 대축일입니다. 미사 시간 참고하시어 꼭 미사 참례하시길 바랍니다.

12. 파티마 세계 사도직 봉헌식

- 봉헌식: 12월 8일 (월),저녁 7시 30분 (성전)
- 준비물 : 꽃과 초 (개인이 준비하셔도 되고 판매도 합니다)

13. 주일학교 교사 연말 디너

- 일시: 12월 12일 (금) 오후 6시
- 장소 : 친교실
- 지난 한해 동안 주일학교 학생들을 정성으로 지도 해 주신 선생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저녁 식사를 준비하였습니다. 주일학교 선생님들께서는 함께 하시어 한해를 마무리 하시는 시간을 되시길 바랍니다. 선생님들 한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14. 새신자 첫 고해

- 일시: 12월 13일(토) 오후 4시 30분 (하상관 110호)
- 대부모님들께서는 꼭 함께 해 주세요.
- 문의 : 선교부장 빈은숙 스텔라 412-523-1792

15. 12월 유아 세례

- 일시 : 12월 13일 (토) 오후 2시
-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6. 2025년 꾸르실료 송년 울뜨레아

- 일시: 12월 14일(일) 오후 5시 30분
- 장소 : 친교실
- 꾸르실리스타들 송년의 밤에 모두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17. 성탄 판공 성사 안내

- 일시 : 12월 16일 (화)
- 판공 성사 : 오후 2시-5시, 저녁 미사후-저녁 9시
- 고해성사 준비를 위한 양심 성찰은 개인적으로 하신 후 고해성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에 주님 앞에서 우리 죄를 고백하며 주님과 화해하시는 시간이 되도록 준비해 주세요.

18. 사목 임원 회의

- 일시: 12월 17일 (수) 오후 6시
- 장소 : 친교실
- 22대 사목 임원 회의가 있습니다. 그동안 수고해 주신 사목 임원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19. 대림 특강 안내

- 아기 예수님 오심을 준비하는 대림 시기를 더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 대림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신자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일시: 12월 19일 (금) 저녁 7시 30분 미사 후
- 주제 : "문"을 여는 신앙
- 강사: 이상훈 안토니오 신부님

20, CYO 겨울 피정

- 일시: 12월 19일 (금) 21일 (일)
- 장소: Camp Highroad, Middleburg, VA
- CYO 학생들이 겨울 피정을 갑니다. 피정하게 되는 우리 학생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 습니다.

21. 2025년 예수님과 함께 하는 송년 행사

• 일시: 12월 28일(일) 오후 6-8시 30분

• 장소 : 친교실

• 참석 인원 : 350명

• 회비 : 20불 (14세 이하 청소년 및 75세 이상 형제

자매님은 무료)

 참가신청: 12월 7일(일) 부터 매주일 미사 후 성당 로비에서 접수 받습니다.

22. 2026년 매일 미사 책 / 제대초 봉헌

- 성물부에서 2026년 개인이 사용할 매일 미사책 신 청받습니다.
- 1년 동안 성당에서 사용하게 될 제대초, 제병, 제주 봉헌을 받습니다. 주님 제단을 밝힐 제대초와 제병, 제주를 봉헌하실 분들은 성물부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 성탄 제대 꽃 봉헌 접수

- 본당 입구에서 제대 꽃 봉헌 접수를 받습니다.
- 봉헌해 주시는 모든 봉헌금은 초와 제병, 제주 및 성당에서 필요로 하는 제대 꽃, 성물 구입 등에 사 용됩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문의: 제대회장 유보나 571-337-7198

24. 교황님 축복장 찾아가세요

 지난번 레오 교황님 축복장을 신청하신 분들께서 는 8시, 10시, 2시 미사 후에 성당 로비에서 찾아가 시기 바랍니다.

25. Giving Tree

- 산탁가 되어주세요!
- 대림 시기를 보내며 하느님의 사랑을 나누는 사랑의(Giving Tree)가 본당 입구에 세워졌습니다. 하상 까리따스가 마련한 Giving Tree에는 원주 지역시설과 본당을 비롯하여 필리핀, 파푸아 뉴기니 지역 등 850명 아동들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카드가달려 있습니다. 이들에게 여러분의 따뜻한 사랑을전해주세요.
- 한명당 후원금은 \$20입니다.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2025년 11월 23일 (연중 제 34주일)

KACM TV 하이라이트

성 정바오로 성당 제공Cox ch 30, 830Fios ch 30

2025년 12월 4일(목) 오후 5시 - 6시 2025년 12월 5일(금) 저녁 8시 - 9시 2025년 12월 7일(일) 오전 6시 - 7시

- 1. 주일미사강론
- 2. 가톨릭 뉴스
- 3. 영상교리 : 세례성사의 의미
- 4. 요한이 만난 사람들 세례자 요한1

교중미사 예물봉헌			
11/30 다음주	버크 4반		
12/7 다음주	애난데일		

Find a Mass near me



여행지에서 가장 가까운 성당과 미사시간을 찾을 수 있습니다.

www.masstimes.org

휴가 중에도 주일을 지키는 신앙인이 되시기 바랍니다.